

서구, 폭염 선제 대응...비상근무 2단계 가동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비상근무
무더위쉼터 284곳·살수차 6대 운영...취약계층 보호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연일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로 높였다.

서구는 31일 오전 10시부터 폭염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 2단계를 가동했다. 8월 초에도 낮 최고기온이 33~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도시국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폭염 관련 9개 부서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서구는 무더위쉼터 284개소의 운영 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구 관내 지하철 6개역에 생수를 지원한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와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3시간으로 단축해 더욱 촘촘한 안전 관리에 나선다.

도심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한 폭염 저감시설도 총가동한다. 총 87.33km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살수차 6대를 하루 3회 이상 집중 투입하고 쿨링포그 12개소와 스마트섬프 3개소, 그늘막 201개소도 상시 운영해

시민들의 폭염 노출을 최소화한다.

야외 노동자와 농업인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주민들을 위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건설공사 현장에는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일하는 고령 농업인의 운영질환 예방을 위해 마을 안내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폭염 행동요령과 야외활동 자제를 지속 안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예찰 활동도 실시한다.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찰과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방학인데 여기어때?

놀자여름!

2026. 8. 8.(토) 12:00
서구청소년수련관 라라센터

여름난장

12:00~13:30 / 1층 올림 공간

- 먹거리 부스
- 물총 과녁 맞추기
- 시원한 피서지! 포토존
- 물 속 보물찾기
- 키링 만들기(비즈 /키캡)
- 응원봉 만들기
- 디퓨저 만들기
- 타투스티커

Y2K가요토크

14:00~16:00 / 2층 공연장

- 청소년 동아리 공연
- 모두 함께해요! 랜덤플레이댄스

서구청소년수련관

여름방학 동아리 축제 포스터

/광주 서구청 제공

광산구, “이번 휴가, 버스 타고 광산구 명소 여행 어때?”

8월 첫 운행...역사·문화 투어

11월까지 테마투어 운영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 속 주요 명소와 문화자원을 버스로 둘러보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광산 알리요투어'를 선보인다.

'광산 알리요투어'는 버스를 타고 광산구의 특색 있는 명소를 테마별로 연결해 다채로운 체험과 관람을 함께 즐기는 대표 도심 관광 콘텐츠다. 올 8월부터 11월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버스 여행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8월 8일 첫선을 보이는 1차 프로그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광산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문화 여행'을 테마로 진행된다.

주요 코스는 ▲2,000년 전 마한 시대 삶의 현장을 재현한 신장동 마한 유적체험관 ▲복합 문화예술 공간 동곡뮤지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윤상원 열사 생가 ▲고봉 기대승 선생의 철학을 품은 월봉서원 ▲조선 시대 선비들의 지혜를 배우는 무양서원 등으로 구성돼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선사한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하게 기획된 테마 투어도 마련된다. ▲9월 19일·20일 : 제4회 광산뮤직온(ON)페스티벌 관람 및 고려인마을 체험으로 꾸러진 '뮤페투어' (2회 진행) ▲10월 17일 : 김봉호 가옥·호 가정 탐방 및 월봉서원 체험 코스

▲10월 24일 : 양궁 체험, 월계동 장고분 탐방, 풍영정 공연 관람 코스
▲11월 7일 : 송산 양떼목장, 명화동 장고분, 호가정을 잇는 힐링 코스

'광산 알리요투어'는 색다른 광산 여행을 즐기고 싶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당 참가 인원은 선착순 30명 내외이며, 참가비는 중식비와 체험비를 포함해 1인당 2만 5,000원이다.

참가 신청은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배우랑게'(edu.gwangsan.go.kr) 또는 소셜 플랫폼 '오이' 앱을 통해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알리요투어는 광산구의 숨은 명소와 풍부한 문화자원을 깊이 있게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도심 여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알리요 버스와 함께 진짜 광산의 매력을 만끽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 광산구는 이번 알리요투어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년층, 외부 방문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계절과 축제, 문화행사를 연계한 맞춤형 코스를 확대해 광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한다.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코스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광시설, 상권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투어 과정에서는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광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한다.

/김정관 기자

광산알리요투어

※ 투어 장소와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월 투어 운영 안내

광산 알리요투어란?
광산구의 명소와 문화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형 버스 투어

운영날짜 8월 8일 토요일

운영시간 10:00 - 17:35 (마한유적체험관 집결)

운영코스
마한유적체험관 ▶ 동곡뮤지엄 ▶ 동곡꽃게장거리(중식) ▶ 윤상원 열사 기념관 ▶ 월봉서원 ▶ 무양서원 ▶ 마한유적체험관(해산)

이용요금 25,000원 / 1인 ※ 중식비, 체험비 등 포함

신청방법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배우랑게 또는 '오이' 앱
edu.gwangsan.go.kr

문의전화 ☎1566-4515

앱에서 신청

광산알리요투어 포스터

/광주 광산구청 제공

제19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2026. 7. 25. 토 ~ 8. 2. 일 / 9일간 탐진강/편백숲 우드랜드/빠빠옹zip 일원

장흥군 (재)장흥축제관광재단

장흥 NEWONG